

## 자체 건물을 보유한 토기회



(주)홍익기술단 전무

김진홍

**토** 기회의 정기모임일인 어느 목요일 저녁 연건평 500여 평의 3층 건물인 토기회관 회의실에서 70대에서 30대 초반에 걸친 여러 연령대의 2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기술사례 발표가 있고 간단한 질의응답과 함께 기술사례에 대한 후배회원들의 호기심어린 질문과 경험이 많은 선배 토기회원의 경험에 따른 기술지도 및 자문이 뒤 따른다.

이후 총무이사의 지난달의 용역수수현황과 회계보고가 이어진다.

용역수수에 따른 수입액 8천만원 입금에 따라 토기회 통장잔고가 5억 3천여만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이어서, 토기회 자금 보유액이 5억이 넘는 관계로 매달 정기회에서 받던 식비는 앞으로 받지 않겠다는 말에 회원들의 박수가 이어진다.

또한 토기회 합격자 1500여명중 토기회 가입인원이 1000명이 넘어서 1000번째 가입회원에게 토기회 장으로부터 행운패와 기념품이 주어진다.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토기회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본 모습이다. 상상만 해도 참 멋진 미래의 자화

상이다. 이와 반대로 지금의 토기회는 800여명 합격자중 398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달 정기 모임에는 이사 정원 30명에도 못 미치는 20~3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토기회 사무실은 좁아서 이 사회도 못 할 형편이다. 그래서 정기모임 전에 식당에서 이사회는 하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연말이면 사무실 운영비, 회원지인 『지반과 기술』 발간비 등으로 회장단은 괴로운 고민을 하고있다.

이와같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두가지가 있다.

- 첫째,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 둘째, 재정확보를 들 수 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티브는 토기회에 참여함으로 인해 토기회원이 얻어 가는게 있어야 한다. 별 도움 주는 것 도 없이 평생회비 납부, 정기모임참여, 기술사례원고 제출 등 회원에게 의 무만 있지 돌아가는 것이 없는 현 상태에서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들여 토기회의 활성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면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토기회에서, 텀키나 대안입찰에 평가위원이나 기술위원을 추천하거나 발주처 별로 자문 및 심의위원을 추천시 토기회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 또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시험문제 출제 및 평가에 토기회원 참여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해야한다.

또한 현재 토기회에 활동하는 연령대를 보면 50대부터 40대 중반으로 한정된 인원이 이사진, 정기모임, 『지반과 기술』지에 기고 하는 등 활동연령대와 활동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연령 30대에서 40대사이의 잠자고 있는 토기회 회원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지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해결해야 할 재정문제는 회원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으나 한정된 인원의 회비만으로 토기회의 재정이 영구적으로 안정화 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처럼 기술발표회나 『지반과 기술』발간때 비용을 기업에 부탁하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좀 더 과감하

게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회원이 용역수수하면 일정부분을 토기회 기금으로 남기는 현 방식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조금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통기술평가연구원 등에서 행하는 국책 연구과제에 토기회 이름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

여러 선배님들과 역대 회장단의 노고에 힘입어 초창기에 비하면 회원수도 많아졌고 자체사무실보유, 가을기술 발표회, 회지 『지반과 기술』발간 등 토기회는 그 사이 많은 발전을 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면 발전은 커녕 쇠락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회원의 참여를 기대하는 소극적인 토기회에서 회원이 참여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토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과거의 자력증만 가지고 있어도 생활이 가능한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변화 발전하면서 시대를 주도하는 토기회가 되었음 하는 바람이 간절한다.